

延大에 성폭력신고전화

「위험수위」판단 국내 첫 설치
변호사 1인 상담위원회도 구성

94. 11. 4

여학생 7% 피해경험

외국의 대학캠퍼스내에서 볼 수 있는 「성폭력신고전화」가 국내 대학에도 처음으로 설치된다. 연세대는 캠퍼스내 성폭력문제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오는 7월 여학생처에 긴급신고전화를 설치, 성폭력신고가 있을 경우 관련자를 조사해 학칙에 따라 징계하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학교측은 성폭력 상담전문가 변호사의 상등각계 전문가 8명으로 「성폭력상담위원회」도 구성, 성폭력 피해여부에 대한 조사작업을 벌이고 피해자들의 고충을 상담해 줄 계획이다.

연세대의 이같은 조치는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나 논문에서 성폭력문제가 부각된데 따른 것.

연세대 여학생회가 최근 여학생 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명(7.3%)이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으며 8명(11.7%)이 「112」에 전화했다. 고압, 성폭력문제가 위험수위를 나타냈다. 특히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학생들 대부분은 가해자가 동료학생이었다고 밝혔으며 장소는 술자리수련회장소 교내잔디밭으로 조사됐다.

성폭력에 대한 대응방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7%가 「복수하겠다」고 밝혔고 여성단체고발(24%) 학교측에 처벌요구(21%) 숨기겠다(18%)순으로 응답했다.